



제 114 호 2018. 10.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

경상북도 의회소식

Gyeonggangbuk-do Council News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정대로 455



Council.gb.go.kr



지면안내

- 의정소식 2~4면
- 개원 100일 5~7면

- 상임위 활동 8~14면
의화운동영 · 기획경제 · 행정보건복지 · 문화환경 · 농수산 · 건설소방 · 교육위원회

- 특위 활동 15~17면
- 5분 자유발언/조례안 발의 18~19면

개 회 사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이 넘치는 우리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높은 가을하늘이 황금들녘과 어울어지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손수 찾아 위문하시고,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지역에서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안정 대책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3일 제11대 첫 의원연수회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것이 이런것이구나’ 하는 생

각을 행사 내내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런 단합된 모습을 계기로 행복이 넘치는 우리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도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견인하던 철강과 모바일 산업이 정체되고, 더불어 인구감소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방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집행부에서는 민선7기 목표로, 지난 9월 3일 도정은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일자리, 문화관광, 저출산 극복, 농촌 공동체 회복 등 핵심사업을 담은 8대분야, 100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살기좋은 행복경북 조성을 위해 좋은 목표들을 많이 설정하였는데,



수치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알찬 결과물이 나오도록 내실을 기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와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이를 기회삼아 경북

이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발돋움 하는데 선제적인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때로는 비판도 하겠지만, 도정의 비전을 공유하며 경북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한 해의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다음 달 회의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안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경식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원구성후 첫 정례회 열어

결산승인, 출자출연 동의안, 행감계획 승인, 조례 등 31개 안건 심의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0월 1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0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처

리한 후, 마지막날인 10월 15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제11대 도의회에서 처음 개최하는 정례회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역인재 채용 등 경제회생을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심의하고, 아울러 이전 회기에서 구성한 원자력대책 등 5개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



의정 만평



경상북도의회, 태풍 피해지역 복구지원 총력

현장방문, 성금 전달, 피해복구 동참 등 경북도의회 자체적 지원 방안 마련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에 큰 상처를 입은 포항과 영덕의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장경식 의장은 10월 7일(일) 오전에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과 함께 영덕군의 이재민 대피소와 침수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을, 오후에는 범람위기에 내몰렸던 포항 형산강 인근지역을 긴급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도의회가 적극 나섰다. 또한, 10월 8일(월)에 장경식 의

장은 같은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장관-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간담회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에서 포항과 영덕 등에 긴급 재난구호지원금 지원 등을 포함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도의회는 이재민 돕기위한 성금 모금에도 참여했다. 11일(목)에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장과 박차양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환경위 소속 의원 6명이 영덕군 재난상황실

을 방문해 긴급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소정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12일(금)에는 장경식 의장이 도의회를 대표해 성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장경식 의장은 “태풍 콩레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슬픔은 잊고 힘을 내시길 바란다.”며,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 하나되어 재난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道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이전지 용흥중학교가 최적지! 장경식 의장과 포항지역 도의원, 임종식 교육감과 간담회 가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임시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10월 1일 포항지역 도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종식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의 용흥중학교로 임시이전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환동해지역본부는 지난 2월 포항테크노파크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여 개청한 이래, 6월부터는 100만 동해안권 주민 대상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 등 1본부 2국 8과의 규모로 120여명의 인력이 상주근무하고 있으나, 주민 접근성 곤란과 기구 확대에 인한 사무

공간 부족 등으로 임시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포항제철서초등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에서 거절 의사를 표명하자, 포항 시내 여러 곳의 빌딩을 재차 알아본 결과,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임시이전지 물색이 원점으로 되돌아 온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용흥중학교 폐교 부지를 찾았지만, 경북교육청에서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수학문화관 건립 예정지임을 내세워 반대하자, 장경식 의장이 사안의 시급성과 지역민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해결에 나선 것이다.

장경식 의장을 포함한 포항지

역 도의원들은 임종식 교육감과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용흥중학교로 환동해지역본부를 임시이전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집행부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의회 독립성 · 전문성강화 촉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이 대거 참여하여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이날 촉구결의대회는 촉구결의문 낭독을 비롯 분권촉구 핸드피켓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한 목소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전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정부와 중앙정치가권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배한철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북 음식문화 페어 2018』 참석

오감이 깨어나는 맛의 향연,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1회 경북식품박람회인 「경북 음식문화 페어 2018」에 참석했다.

「경북 음식문화 페어 2018」는 “경북, 음식문화의 삶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주제관, 체험관, 식품비즈니스관, 부대행사로 구성하였으며 경북의 다양한 특산물과 전통음

식, 신기술이 접목된 가공식품을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먹고, 느끼면서 음식과 사람이 만나는 축제의 장으로 경북 음식의 새로운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배한철 부의장은 “경북의 음식문화를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맞춘 고부가가치의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

『2018 국제탄소산업포럼』 참석

전국 최대규모 탄소산업전, 세계적 탄소전문가 · 기업인 1,500여명 참석

김봉교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와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드론 등의 출현으로 경량화소재(탄소, 알루미늄 등) 개발에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0.17(수)~18(목)까지 2일간 구미코에서 열린 「2018 국제탄소산업포럼」에 참석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탄소복합재와 고효율 에너지시

대’라는 주제로 미래형 산업에 적용되는 탄소복합재의 기술동향과 국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탄소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김봉교 부의장은 “탄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새로운 경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제11대 경상북도의회, 개원 100일간의 기록

새로운 의회를 향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으로 100일간 끊임없는 담금질
새로운 의회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대외 위상 높아져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가 지난 7월 5일 제301회 임시회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이래 10월 12일로 개원 100일을 맞이했다.

경상북도의회는 대외적으로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수장이 모두 바뀌고, 내부적으로는 경상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을 포함한 사실상의 다당제 구조로 재편되는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통한 협치를 일궈내며, 도정질문·예산심의·조례 제개정 등의 고유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의회에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이 번뜩이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상북도의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이전과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이렇듯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슬로건으로 발표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에 걸맞게,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행동에 나서면서 도민들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가고 있다.

우선, 원자력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독도수호특위, 지진대책특위, 통합공항이전특위를 구성하여 도정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의정활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또한, 방위백서를 강력규탄하고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열면서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폭염 및 태풍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현장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도정질문에서는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탈피 전격적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유성 논란이 있는 의원 국외연수의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내실있는 의원연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전국최초로 지역 4개 대학(경북대, 안동대, 영남대, 한동대)과 의정활동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외적으로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장경식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 중 1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한국신문방송인클럽과 한국SNS기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18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는 장경식 의장이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여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민심을 적극 받들어 화합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변화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즐기차게 노력한 100일이였다.”며 소회를 밝혔다.

“우리 경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제11대 도의회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과거보다 진전된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의회는 최종적인 목표는 경북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다. 새로운 의회를 바라는 도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도의원 60명이 함께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새로운 생각! 행동! 의회!

새로운 생각!

●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슬로건 발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8월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슬로건을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로 최종 결정하여 발표했다.

새로운 슬로건은 경북도의회가 기존의 관행과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경북의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정활동 방향을 잘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의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다당제 구조에 따른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집행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하고 견제와 균형,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도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도정현안 중심 특별위원회 구성

경상북도의회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5개를 구성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에너지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을 단호하고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복구하고 체계적이고도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통합공항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지역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정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 정책 싱크탱크,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경상북도의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입법정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15명의 도의원 외에 지역의 교수, 전문가까지 포함시켜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의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자율적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책연구 활성화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 도민 소통 강화 홈페이지 개편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을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이번에 개편한 홈페이지는 메인 홈페이지 및 위원회·의원 홈페이지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기존 사용하던 기능들을 통합 및 단순화하여 도민들의 정보접근 편의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행동!

● 독도 수호 의지 만천하에 표명

경상북도의회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日방위백서를 강력 규탄하고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독도수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의 독도 침략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점검

경북도의회는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던 올해 여름의 폭염 기간 중에는 폭염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농축산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폭염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피해예방과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 요청했다. 무더위 쉼터도 찾아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태풍에 대비하여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사전에 점검하였으며,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지나간 경북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 1문 1답 도정질문 방식 도입

경상북도의회는 제303회 임시회부터 일문일답식 도정질문 방식을 도입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미리 질문 내용을 알려줘 맞춤형 답변이 가능했던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탈피해 최소한의 범주만 알려주고 구체적 질문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으로 집행부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내용 공부에 몰두하는 등 생동감 있는 도정질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 의원 국외연수 운영시스템 개선

경상북도의회는 매년 외유성 논란이 되풀이 되어온 의원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시스템을 개편했다.

우선, 공무원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새

롭게 하였다. 7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당연직인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6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해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연수전문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선정해 연수내용의 충실성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연수단 대표가 의회 본회의에서 연수결과를 보고하게 하여 연수결과의 충실성을 검증받도록 했다. 이렇게 준비-실행-연수결과의 정책실현화 단계까지 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내실있는 의원 연수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의회!

● 지방의회와 대학간 자문체계 구축

경상북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10월 1일 경북대(총장 김상동), 안동대(총장 권태환), 영남대(총장 서길수), 한동대(총장 장순흥)와 의정활동 자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로 경상북도의회와 지역 4개 대학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자문협력하게 되며, 향후 경상북도의회와 대학간 공동연구 추진, 경상북도의회와 지역대학간 교류·협력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게 된다.



● 장경식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도 정기회를 열고 제16대 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장경식 의장을 선출했다.

장경식 의장은 이를 계기로 전국시도의회의의 현안사항인 정책보좌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 입법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비롯 지방분권 개헌 등에 앞장서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장경식 의장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선출은 전국시도의회의장 17명 중 1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서 선출된 것으로 경상북도의회의 높은 위상을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에서의 활동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 장경식 의장,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수상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9월 20일(목) 한국신문방송인클럽과 한국SNS기자연합회가 주관하여 열린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인물, 기업(기관), 단체들을 선정하여 그간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고 책임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수여하고 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제304회 정례회 활동

의회운영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 처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용선)는 제304회 임시회 기간중인 지난 2018년 10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17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였다.

□ 이번에 심사한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전체 일정이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별로 경상북도 본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법인,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및 교육행정사무 업무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이와 함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해왔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불용액은 전년도 10억 81백만원보다 4억 92백만원 감소한 5억 89백만으로써 전년도 대비 예산 집행율이 높아졌으나, 외빈초청여비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위탁교육비, 의원상해부담금의 경우 포항지진 등의 국내사정과 의원 위탁교육 미신청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집행사유가 분명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사업비의 경우에는 정리추경 시에 이를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박용선 운영위원장은 “300만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지금까지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04회 정례회 활동

사전 면밀한 소요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라!

조례안 · 동의안 9건 및 201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0월 4일과 5일, 15일에 상임위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소관 실국의 2017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였다.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윤승오(비례) 의원은 “향후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줄 수 있으나, 기존 위원회 조례와 상충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박권현(청도) 의원 “200명의 정책자문위원과 50명의 특별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경북도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 시 당위성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방해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김득환(구미) 의원은 “경북도에서 만약 4차산업 및 블록체인 등을 지역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며, 특별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상북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종열(영양) 의원은 “지난 2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일일교환 근무를 추진했고, 내년 1월 경북도와 대구시에 국장 1명과 과장 1명의 인사를 교류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

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소관 세입 · 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황병직(영주) 의원은 “세정담당관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76억원의 결손처분을 했는데, 경북도의 가용자원 및 세수확보 상황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이루고,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연구용역비의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물어”보고 “새로운 용역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에 추진했던 용역을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하였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 · 출연동의안 심사에서

박영환(영천) 의원은 “2019년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출자 · 출연동의안은 8개 기관에 17개 사업을 출자 · 출연할 예정인데 각 사업들의 효과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7회계연도 일자리경제산업실소관 세입 · 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이철구(포항) 의원은 “2017년도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의 조성액은 5,500만원이지만 지원액은 1,600만원뿐 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7회계연도 동해안전락산업국소관 세입 · 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도기욱(예천)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동해안원전클러스터 사업 대부분이 추진 불투명함으로 관련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원자력 해체기술을 포함해서 경북도가 독자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할 것”을 주문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을 살펴보면 대부분 계약 차액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보이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소요분석 등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04회 정례회 활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및 출연 동의안 심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출연동의안 등 송곳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제30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0. 4(목)에서 10. 5(금)까지 이틀 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에서 홍정근 의원(경산)은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경상경비의 경우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치밀한 예산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임미애 의원(의성)은 청소년육성재단과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집행실적을 점검하며 기금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보육인경진대회 사업, 보육유공자 표창 등 아동복지 사업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보육현장의 사기진작

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사성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출연기관 동의안은 관리·감독 부서별이 아닌 출연 기관별로 분리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인건비는 사전에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계상하고 불용액은 추경예산 편성 시 정리하여 당해 연도 예산이 규모 있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연기관 동의안 심사에서 김상조(구미) 의원은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청·교육청 등에서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사·중복사업은 관련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낭비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하수(청도) 의원은 새마을정신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는 정신운동으로 발전시킬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전문 인력의 투입을 주문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출연기관의 출연금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집행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에서 경북혁신도시의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규모로 울곡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 장비와 인력도 확충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번 결산 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였지만, 일부 사업은 여전히 불용액이 많다”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제304회 정례회 활동

문화환경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출자·출연안 심사

출연기관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진한 사업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4일, 5일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출자·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박차양 부위원장(경주시)은 (재)문화엑스포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산출내역이 불명확함을 지적하면서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재)문화엑스포의 내년도 행사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운영비 출연예정액이 과도하게 증액된 것을 꼬집으며 내실있는 행사계획 수립으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영선 의원(비례)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과도한 출연은 재단의 잉여금만 증가시켜 필요한 재원이 도민을 위해 투자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출연보다는 재단 경영의 자립성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결산심사에서 이선희 의원(비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과 이월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하여 추궁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 자금운영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채아 의원(비례)은 3대 문화권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마다 사업진도가 미진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주홍 위원장(영덕)은 “이번에 상정된 출자·출연 동의안과 결산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



농수산위원회

제304회 정례회 활동

독도영유권 강화위해, 독도거주주민의 생계비 20만원 인상 출연기관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진한 사업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4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 2일(화),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9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김준열(구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간인의 독도정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지원해 온 생계비 지원금을 월 70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독도거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사업들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만큼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진행중인 사업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는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짚어보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각별히 심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먼저 질의에 나선 한창화(포항) 위원은 결산 보고내역 중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사업시행 이후의 집행내역이나, 사업추진성과 등에 대한 감시 장치가 미흡하여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당부하였다.

방유봉(울진) 위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고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매년 10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자선정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사업포기가 도내 전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약 340억 중 38억이 반환되고 있는 현실인데, 사업포기 시군에 대한 패널티를 보다 엄격하게 부과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으로 농민이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경북도가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성진(안동) 위원은 7,000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농업관련 예산에 비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적어 긍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나, 농축산유통국의 결산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농촌개발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이 대부분인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남영숙(상주) 위원은 사업집행 잔액이나 불용액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상이변과 반복된 가뭄으로 물자원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누수관로 점검과 배수시설 설치 등 지방의 물자원 확보를 위한 복합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다.

박창석(군위) 위원은 5억 4,900만원이 소요되

는 단일 공모사업에 해당시군의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로 2억 6,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불용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통전담기구신설과 관련하여 농민사관학교가 소재한 군위군과의 원활한 업무소통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4일 현지확인 차 경북 상주시 화산동에 위치한 4.95ha규모의 거대한 비닐하우스 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북도와 상주시 관계자로부터 비닐하우스 시설현황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시설대표(조영호, 새봄농장)에게 생산한 토마토의 유통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욕적인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우리농업에 스마트팜 농업은 한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고, “농촌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 창업농을 농촌으로 불러 들여 4차 산업혁명을 농촌에서 먼저 실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얼마 전 「경상북도 스마트농업육성 조례안」을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는 등 미래 스마트팜 경북농업을 앞당기기 위해 의회 차원의 모든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건설소방위원회

제304회 정례회 활동



예산의 효율적 집행 검토를 위한 17년도 예산결산 심사

사에서는 재난 관련 홍보가 기존의 언론사 중심으로 관행적이고 행사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어린이 위주의 홍보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며 향후 예산수립 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종 행사와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정확한 정산 검증 절차와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없는 행사의 경우 과감한 정리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에서는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사업이월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가능한 회계연도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불편 해소와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반복적으로 공사 관련 예산이 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세밀한 검토로 예산의 신중한 연차별 재정계획을 요청했다. 신도시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소방서 예산의 경우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예산수립과 집행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에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7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10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난 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는 결산 심사 자료에 대한 연구와 철저한 준비를 해온 조선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주목을 받았다. 재난안전실 소관 심



어린이놀이터 조성·지원 조례 및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등 3건 심사

[조례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10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정영길 의원(성주1)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놀이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 중 어린이 놀이공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로 상세히 규정하였다. 또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놀이터 설계디자인, 주민참여 교육,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10인 이내의 어린이 놀이터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놀이터 유지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으로 지역주민과, 어린이,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확산을 통해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한 놀이공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주

요내용으로는 협의체의 기능, 위원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실무협의회, 의견청취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체 운영시 수당 등 예산지원과 운영 세칙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7년 12월 26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 및 내용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다. 🍁

교육위원회

제304회 정례회 활동

교육위원회, 2017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전년대비 5,075억원(11.5%) 증가한 4조 9,203억원 규모의 경북교육청 결산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호)는 지난 10월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총 4조 9,203억원 규모의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박용선 의원(포항)은 매년 지적된 불용액이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점은 집행부의 노력에 기인한 바람직한 개선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 및 가격상승 우려 속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건물 실내외 도색 및 창호 개체 시 단열·차열 기능이 있는 자재 사용을 제안했으며,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체육수업 결손 예방 등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체육 시설인 다목적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대응투자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하게 건립할 수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불용액 중 계획변경 및 취소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편의주의적 행정에 기인한 것이라 지적하고 사업추진의 철저한 사전 분석 및 사업의 적정성 등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사후적으로도 감사부서의 예산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을 언급하며 기금을 교육적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도학생야영장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과거 직영 운영을 위한 급식기구 구입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고도 영양사 정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위탁운영 중으로 이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대안으로 조리사 중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여 직영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향후 급식소 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로 사업 기간 동안 위탁급식 의존도가 높아져 이로 인한 급식 식중독 사고가 급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성인지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예산의 성차별적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불평등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대춘 의원(비례)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출 시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가 표준액 오류가 확인된 바 있다며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시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검토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매년 반복되는 학교급식 사고를 일제로 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으며 민선 4기 교육감이 출범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지만 도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며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변화하는 모습을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미수납액 중 수년간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소 불명, 재력부족 등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절차에 따라 조속한 불납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내진보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지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속히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경호 위원장(칠곡)은 도교육청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사항은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30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결

세입·세출 결산내역, 예산집행 과정 등 한 해 살림살이 꼼꼼히 살펴...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다.

이번 결산심사는 당초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태풍(콩레이)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11일까지 양일간으로 일정을 조정하여 심사를 마무리하였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세입결산액은 8조 5,330억 60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조 9,146억 50백만원으로 6,184억 10백만원의 차인잔액(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3,128억 5백만원, 보조금집행

잔액 37억 5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18억 52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4조 9,604억 7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4,286억 62백만원으로 5,318억 1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4,045억 90백만원, 보조금잔액 8억 7백만원, 지방교육채상환 401억 2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62억 86백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살폈으며, 결산심사 결과는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방세 미수납 및 결손처분, 불용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하며,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부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304회 정례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응 대응할 것!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제 3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10월 1일 제2차 원자

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해안전락산업 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남용대(울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의 국회 답변과정에서 원전 부실시 공을 언급한 이후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중앙부처, 경북도, 한수원은 명확하게 해명을 할 것”을 촉구 하였다.

박차양(경주) 의원은 “원자력정책과 업무분장에 방폐장 안전관리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업무보고서에 있는 주요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이라도 먼저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前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해서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다”고 질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경북도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하였다.

박승직(경주) 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경북도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 원전산업의 경제적 피해에 따른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304회 정례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

11대 전반기 독도특위 힘찬 출발 ‘일본의 독도침탈 꿈도 꾸지마라 !’

독도의 실효적지배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 한목소리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진)는 10월 1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기관인 해양수산국으로부터 경상북도의회 11대 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성진(안동) 위원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독도에 대한 각종 사업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독도문제는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고 경북도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방비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각종사업에 반드시 국비가 과반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박판수(김천) 부위원장은 독도문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못지않게 민간차원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지역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대일(안동) 의원은 일본의 독도침탈과 독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날로 엄중해지는 현실에서 이제는 정책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해외홍보강화와 가해자인 일본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김하수(청도) 의원은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 대내외 홍보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이 더이상 억지주장을 할 수 없도록 역사적인 사료와 국제법적인 반박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논리적으로 홍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경우 연구용역과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는데, 정부의 사업유보방침 이후 추가 진행사항이 있는지 묻고, 지역의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도 방파제사업으로 이것만이라도 지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사업이 미 실시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재차 묻고, 우리정부가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재도(포항) 의원은 현재 우리의 독도에 대한 대응은 일본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후에 대응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선제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304회 정례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소관부서 업무보고 받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추진 요구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일(월) 저출산·고령화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첫 업무보고를 받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소관 부서별로 당면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한 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임미애 의원(의성)은 다둥이 중심의 출산 지원 정책에서 나아가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도 전폭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을 검토 요청했다.

안희영 의원(예천), 김시환 의원(칠곡)은 현실에 맞는 정책 발굴을 통하여 젊은 층의 인구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열 의원(영양)은 저출생·고령화 관련예산을 통합하여 출생에서 노후까지 ONE-STOP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민간병원을 활용한 분만인프라의 구축과 거점병원화를 통해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보육시설 지원,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영선 위원장은 “앞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방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304회 정례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지진대책특별위”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 개시

주요업무 보고 및 현안사항 질의를 통해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완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구, 포항3)는 10월 1일 제2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특위 활동을 위한 준비를 다졌다.

특히 포항의 지진피해로 아직까지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와 의견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지진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과 효과, 향후 주요 추진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을 지진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게 거듭 당부했다.

이철구 위원장은 “재작년 경주에 이은 작년 대규모 포항지진으로 경북도

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당하다”며, “특히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등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포항지역에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제304회 정례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

통합공항이전사업은 도민소통이 가장 중요!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및 현안사항 질의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 군위)는 10월 5일 제2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특위 활동을 위한 준비를 다졌다.

특히 부산 가덕도나 김해공항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이전 시 발생할 소음피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현장에서 도민과의 소통과 면밀한 조사로 이전 주변지역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을 통해 도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공항이전 추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에게 거듭 당부했다.

박창석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각종 난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

공항이전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늘 도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



5분 자유발언

경상북도 노동정책전담조직 신설 촉구

윤승오 의원(비례)은 10월 1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의 노동정책을 총괄하여 전담할 노동복지와 신설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북도에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관련 부서만 존재할 뿐 도내 130만 노동자(총취업자수, 2018, 경북통계포털)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으며, 본청 중소벤처기업과 내 노사협력팀에서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노동문제가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는 현재의 부서 편제 아래에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팀 단위의 조직은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업무는 위축되고 협소한 시각의 경직된 행정과 노동 존중 인식 부족의 관행적 행정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은 재직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불러오며, 경북지역 고용환경 안정과 인구 증감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도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시행할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윤승오 의원은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원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존중 인식을 확산해 주길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 (비례)

성급히 추진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적 정착 위해 지혜모아야!

김영선 의원(비례)은 10월 1일 개최된 제3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가 농림부로부터 지난 8월 2일 상주에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도차원의 추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사업비 1,6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나 농업 전체 산업에 미칠 사전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추진된 점을 우려하면서,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치밀한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경북 농업분야 단일 공모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사업시행자가 경북도지사임에도 지방비 357억원 중 도비는 77억원만 부담한채 사업비 280억원과 운영비 등을 상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비지원 확대를 촉구하였다. 또한, 스마트팜 밸리에서 쏟아지게 될 농산물로 인해 기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됨을 강조하면서, 기존농가들에 대한 피해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체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년농업인 육성 계획에 대해서도 스마트팜 사업은 고자본 고기술의 사업인데, 과연 청년들이 고자본의 창업자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해 줄 것과 국가차원의 생육데이터 확보 방안마련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영선 의원 (비례)

태풍 콩레이, 침수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야

조주홍 도의원(영덕)은 10월 15일 개최된 제3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일과 6일 사이에 불어닥친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지역 도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조 의원은 오늘(15일)부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정부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국고지원금이 주로 하천,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이 되고, 피해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기껏해야 100만원~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전부임을 지적하면서, 도차원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였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영덕지역의 침수피해에 따른 저소득층과 서민,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자립이라도 될 수 있도록,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극적인 법개정 추진을 경북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조 의원은 도민은 행정과 의회를 믿고, 의회와 행정은 도민을 지켜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태풍 등 자연재난이 빈번한 현실에서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관할 수 있는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조주홍 의원 (영덕)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촉구

김상현(포항)은 10월 1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의 무상급식 정책이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부터라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국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시·도가 현재 초·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는 곳도 인천, 세종,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 이르고 있음에도,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부터 겨우 초등학교까지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중학교 이상은 아직 확대·시행하지 못해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불요불급한 전시장 예산을 줄인다면 얼마든지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 예산의 0.8%밖에 되지 않는 교육지원예산을 더 늘려줄 것을 이철우 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내년부터라도 당장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시행할 것을 임종식 교육감에게 거듭 촉구하였다.



김상현 의원 (포항)

영양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이종열 의원(영양)은 1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담보 상태에 빠져있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가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산채자원의 확보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낙후된 기술과 산업화 기반을 혁신함으로써 산채산업을 경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총사업비 551억원을 투입하여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에 국가 거점인 한국산채개발원, 영양군과 강원도 양구군 일대에 산채생산 연계지구를 각각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도 총괄 주무부서인 산림자원과에서는 기본계획과 달리 완공 후에 운영비를 50% 지원하고, 인력채용은 위탁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주관 부서인 미래융합산업과로 요구하라며 떠넘기고, 미래융합산업과에서는 주무부서인 산림자원과와 협의하라며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양군은 위탁 운영의 주체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은 물론 사업 시작을 위한 TF팀도 구성을 못한 채 경북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종열 의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인 경북도와 영양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빠른 시일 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과, 경북도가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한국산채개발원 조성을 위해 약속한 도 직원 파견 1명, 운영 전문인력 20명 중 3명의 우선 채용, 실시설계부터 운영비 50%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산채개발원 TF팀의 조속한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열 의원 (영양)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사태' 조속한 대책마련 촉구!

임무석 의원(영주2)은 10.15일 10여년 넘게 영주의 흉물로 방치되어 가고 있는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의 정상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양최대의 사계절 워터파크를 목표로 건설되다가 세계금융 위기사태와 맞물려 자금압박으로 2008년 10월 28일 전체 공정율 73%인 상태에서 부도처리된 판타시온 리조트는 그 후 10여년 넘게 법정경매에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며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행정불신,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여 민간과 함께하는 문화관광사업추진으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추진과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타시온 리조트의 조속한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무석 의원은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를 위해 영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소중한 지역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일이며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경북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예산 중 농로포장, 농업기반시설예산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배제하거나 삭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임무석 의원 (영주)

김천·상주·문경간 경북선 철도 조기 건설 촉구

나기보 의원(김천) 10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절 구간인 김천·상주·문경간 경북선 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가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경상남도에서는 남부내륙 철도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중앙부처와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상북도는 김천·상주·문경간 경북선 철도 건설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또는 예산반영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전혀 받지 못하여 중부내륙선과 남부내륙선이 모두 완공된 이후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나 의원은 중부와 남부내륙선의 중간에 있는 경북선은 국책사업임에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경북선(김천·상주·문경) 조기 건설을 위하여 적극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실질적인 건설 계획수립과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 의원은 “경북선 철도의 건설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 발전과 수도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구간으로 반드시 조기 건설”되어야 하고,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충추적인 구간이 단절 되어 있다는 것은 경북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로서 조기 건설을 위하여 이철우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강조”하였다.



나기보 의원(김천)

울릉도 도동항 선착장에 안용복 동상 건립 촉구

박차양 도의원(경주)은 10월 15일 개최된 제30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세계 속의 독도 알리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울릉도 도동항 입구에 안용복 장군 동상 건립을 촉구하였다.

박 의원은 안용복기념관이 2013년 10월 울릉군 북면에 개관하였지만 울릉 도동항에서 33km나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실제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의 10%정도만 안용복 기념관을 찾고 있어 관광객들이 독도 영토주권과 안용복 장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동상은 관광객들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홍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 안용복 장군 동상이 울릉도 도동 선착장에 바로 세워진다면 도민과 관광객들이 동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포토존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울릉도 관광의 랜드마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외국 관광객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독도의 날’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날로서,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경북도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독도 영토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차양 의원(경주)

조례안 발의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준열 의원(구미)

김준열 의원(구미)은 독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인의 독도정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1월에 제정된 본 조례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지원해 온 생계비 지원금을 소비자 물가 상승, 가구소득 증가 등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김준열 의원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의 실질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거주와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생계비 지원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독도거주 민간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이재도 의원(포항)

이재도 의원(포항)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설치요건이나 설치절차,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중 심신장애, 비위사실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 조례가 시행될 시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전 까지 배부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고,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재도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는 여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운영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던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 위원회 중 유사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중복을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영길 의원(성주)

정영길 의원(성주)은 광역 시·도 중 최초로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다.

정의원은 금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는 정형화 되고 일률적으로 설치되어 어린이들로 부터 재미가 없고 지루한 놀이터로 인식 되어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이유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창의적이고 놀이친화적인 모험놀이터 조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시행되면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어린이공원에서 해제 되면 더욱 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확충공간은 부족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이에,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더 이상 외면받지 않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어린이,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확산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한 놀이공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놀이터 설계디자인, 주민참여 교육, 참여 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10인 이내의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놀이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과 놀이터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



이칠구 의원(포항)

이칠구 의원(포항)은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칠구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최근 전통시장 대형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화재에 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상인의 조속한 생업복구 및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며,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이 높아 기존 보험사가 보험 인수를 꺼리고 영세 상인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한 실정에서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보다는
남은 3년 265일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섭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의회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무겁게 받들어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